

예비교사의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의 운영방안 모색: 미국대학의 강의계획서 분석을 중심으로*

손승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서유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BK사업단

나경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요약》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이 강조되면서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예비교사들을 위한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이 교직소양과목으로서 필수과목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예비교사양성 프로그램에서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특수교육 교직과목이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미국의 대학에서 개설한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강의계획서 중 CEC/INTASC의 특수교육 핵심교육내용 기준에 따라 수업목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강의계획서를 선별하였고,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수업목표, 내용, 활동들을 분석하였다. 강의 계획서 분석 결과, 예비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목은 전반적으로 CEC/INTASC의 대부분의 기준에 관련된 수업목표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CEC/INTASC의 기준1(기초)과 관련된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세부적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대학은 최대 9개, 최소 4개의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예를 들어, 출석관련활동, 미디어/공학 관련 활동, 개별/조별 프로젝트, 자원봉사/봉사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예비교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질 높은 통합교육을 제공할

* 본 연구는 2010년 하계통합교육학회 발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1저자(sshysk@korea.ac.kr)

*** 교신저자(ilpumi@gmail.com)

수 있는 예비교사들을 양성, 배출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특수교육학개론, 통합교육, 예비교사, CEC/INTASC 기준

I. 서 론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통합교육이 법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통합교육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2007년 65.2%, 2008년 67.3%, 2009년 68.3%에서 2010년 70.0%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특수교육계에서는 일반교실 내에서의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이 과연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생겨났다. 즉, 통합교육환경에서 장애학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일반교실 안에 배치된 ‘물리적 환경의 통합’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애학생의 개별화된 교육목표에 부합한 교육내용으로 수정하는 ‘교육내용의 수정’과 이를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하는 ‘교수 적합화’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권요한, 이만영, 2002; 이동주, 권요한, 2009).

장애학생의 교육적 욕구 충족,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 등과 같은 의미 있는 통합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통합’만이 아닌 일반교사가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의 수정’과 ‘교수 적합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질 높은 통합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교사는 장애학생들, 부모, 또는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들과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할과 책임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Sabornie & deBettencourt, 1997). 이러한 일반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은 일반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만 초점을 둔 전통적 교사교육을 통해서 일반교사들에게 기대하기는 무척 힘든 실정이며, 이에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의 능력과 책임의식을 가진 일반교사를 양성하여 배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방안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Sabornie & deBettencourt, 1997).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일반교육 예비교사들은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 하에 2009학년도 입학자 중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 교직소양과목으로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을 2학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규정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10).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 이수를 통해서, 예비교사들이 질 높은 통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통합학급교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교육주도위원회(Regular Education Initiative, REI)와 전미교사교육인증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NCATE)에 따르면 교사양성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예비교사들을 위한 기초적 수준의 특수교육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의 역량양성과 이를 위한 특수교육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Powers, 1992). 또한 전미교사평가 및 지원협회(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 Support Consortium, INTASC)의 특수교육 분과위원회에서는 특수아동학회(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CEC)에서 제시하는 10가지 핵심적 특수교육내용 기준과 병행하는 일반교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10가지 교사수행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특수교육 과목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핵심적 특수교육내용과 이를 통해서 예비교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통합교육 교사로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계화했다. 더 나아가 NCATE(2002)는 예비교사들이 통합교육 교사로서 이러한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수업에서는 예비교사들에게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한 지식과 기술들을 적용, 심화시킬 수 있는 장애학생과의 직접적인 경험과 다양한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실행하며,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현장에서의 학생과의 직접적인 경험과 활동은 예비교사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교직과목 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다(Prater & Sileo, 2004). 특히 특수교육계에서는 현장경험과 활동은 예비특수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특수교사들에게는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계획할 수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 및 돌발행동을 파악하고, 이를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수교사의 능력은 이론적 지식과 기술 습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양한 현장경험과 활동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강조되어 왔다(김병하, 1995; 김호연, 박경옥, 이태수 외, 2007). 현장경험과 활동은 분명 특수교사들 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담당하게 될 일반교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며, 따라서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에서는 특수교육과 장애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만을 강의

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활동과제를 통해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고,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장애학생을 실제로 교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NCTRL, 1991). 이에 미국 주요대학들의 예비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교직과목은 강의뿐 아니라 봉사 학습, 소그룹 워크숍, 수업관찰, 실습, 활동과제 등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활동과제를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애학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예비교사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영선, 2010). 이러한 다양한 현장경험과 활동과제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장애학생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활동기회를 갖고 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익히게 될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식을 일깨우고, 인간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다양한 현장경험과 활동은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Widden, Mayer-Smith, & Moon, 1998).

이렇듯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교수학습 내용과 활동의 중요성이 질높은 통합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이 점차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아직까지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교수학습 내용과 활동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업운영 모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바처럼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예비교사들을 위한 특수교육 교직과목이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시행되어 온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 개설된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수업목표, 내용, 활동들을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강의계획서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어떤 수업목표를 가지고, 어떤 교수학습 내용을, 어떤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미국대학의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살펴볼 때,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수업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교수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
2. 미국대학의 강의계획서를 토대로 살펴볼 때,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교직과목은 어떤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가?

위의 연구 목적을 토대로 한 결과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업목표 설정과 교수학습 내용 구성방안들을 모색하고, 계획,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장애학생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

교육학개론 교직과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폭넓고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질 높은 통합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예비교사들을 양성, 배출하는데 필요한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특수교육 교직과목 운영 현황 분석 방법

이 절에서는 국외 대학의 특수교육 교직과목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강의 계획서를 수집하고 교직과목의 내용구성과 교수학습활동을 분석하였다. 강의계획서 선정 절차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 교직과목 강의 계획서 선정 절차

일반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교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는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Google에서 “special education”, “Individual differences”, “exceptionality”, “students with special needs”, “students with disabilities”, “syllab*”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강의계획서를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Univ. of Georgia, Univ. of South Florida, Univ. of Nevada, Las Vegas, George Mason Univ., Univ. of Maryland, College Park, Univ. of Virginia 등의 대학교에서 개설된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강의계획서가 수집되었다. 둘째,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선정한 특수교육분야 10위권대학의 사범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해 접근 가능한 강의계획서를 찾았다. 이를 통해 Univ. of Texas at Austin의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강의계획서가 수집되었고, Vanderbilt Univ.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교직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교와의 연락을 통해 강의계획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수집된 강의계획서 중 교수학습 내용과 목표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학부에 개설된 특수교육 교직과목이고, 둘째, 강의계획서에서 CEC의 10가지 특수교육내용 기준이나 INTASC의 특수교육분과위원회의 특수교육을 위한 교사수행 원리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강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가 CEC와 INTASC 기준제

시를 수업계획서의 선정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이 기준들이 예비일반교사들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개론 과목을 설계하는 교수자들에게 통합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일반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많은 수업계획서에서 수업목표와 내용을 구성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즉, INTASC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을 가르치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크게 10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하였고 각각의 기준에 따른 하위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심화된 역량에 대해서 10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하위 지표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INTASC의 기준은 미국 특수교육계에서 가장 큰 학회 중의 하나인 CEC가 제시하고 있는 특수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10가지 내용기준과 평행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CEC, 2010). 이러한 CEC와 INTASC의 기준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능력을 개발시켜야 하는 특수교육 기초 내용영역에 대한 기준으로 많은 교사교육관련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요 주정부 학교기관장 위원회(CCSSO,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2008)에서는 CEC와 INTASC의 기준을 토대로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일반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초인지적 지식으로 분류해 제시한 바 있다(INTASC,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TASC 기준이나 CEC 기준을 토대로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을 담당하게 될 예비일반교사들이 배워야 하는 특수교육과 장애학생에 대한 지식과 기술, 또한 예비일반교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수업계획서에 제시한 강의계획서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CEC/INTASC 기준에 따라 강의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거나, 구글검색이나 해당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계획서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수집된 강의계획서 중 교수학습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설명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강의계획서를 선정하였다. USF와 UNLV의 경우 시험 관련 내용의 배점만이 제시되었고,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교수학습 활동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UVA의 경우 CEC/INTASC 기준에 의거한 목표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이기에 교수학습활동 분석에는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7개 대학의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교수학습내용을 분석하였고, 6개 대학의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교수학습활동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대학의 강의계획서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강의계획서 정보

학 교	과목번호	강의명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Univ. of Texas at Austin (이하 UT)	ALD 322	Individual Differences	✓	✓
Vanderbilt Univ. (이하 VU)	SPED 1010	Introduction to Exceptionality	✓	✓
Univ. of Georgia (이하 UGA)	SPED 2000	Survey of Special Education	✓	✓
George Mason Univ. (이하 GMU)	EDSE 401/501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	✓
Univ. of South Florida (이하 USF)	EES 4012	Foundations of Special Education	✓	
Univ. of Nevada, Las Vegas (이하 UNLV)	ESP 200	Introduction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	✓
Univ. of Maryland, College Park (이하 UMCP)	EDSP 210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	
Univ. of Virginia (이하 UVA)	EDIS 302	Exceptional Learners		✓

2. 특수교육 교직과목 교수학습 내용 및 활동 분석

수집된 총 7개 학교의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교수학습 내용과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2010년에 개정된 CEC 기준 가운데 특수교육 내용기준에 해당하는 10가지 사항과 이와 평행하는 INTASC의 특수교육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10가지 기준을 분석변인으로 사용했다(CEC, 2010; INTASC, 2001). CEC와 INTASC의 10가지 기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CEC/INTASC 기준

	CEC 기준	INTASC 기준
기준 1	기초	교사는 가르치는 분야의 기본 개념과 탐구방법, 구조를 이해하고 이러한 교과목의 측면들이 학생에게 유의미하도록 학습경험을 창조한다.
기준 2	학습자 특성과 발달	교사는 아동이 어떻게 배우고 발달하는지 이해하고 학습자의 지적, 사회적, 개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기준 3	학습의 개인차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에 접근하는데 있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다양한 학습자에게 적용된 교수기회를 창조한다.
기준 4	교수 전략	교사는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수행기술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수전략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기준 5	학습환경 및 사회적 상호작용	교사는 개인과 집단의 동기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적극적인 학습참여 및 자기동기를 촉진하는 학습 환경을 창조하는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
기준 6	언어	교사는 교실에서 적극적인 탐구와 협력,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기술과,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르고 이를 사용한다.
기준 7	교수적 계획	교사는 교과지식, 학생, 지역사회, 교육과정 목표를 바탕으로 교수를 계획한다.
기준 8	사정	교사는 학습자의 지속적인 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평가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사정 전략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기준 9	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	교사는 학생, 학부모, 동료 등 타인에게 취한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전문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반성적인 실천가이다.
기준 10	협력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동료, 가족, 상위의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연대감을 기른다.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수업목표와 내용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각각의 수업목표와 내용이 CEC/INTASC의 기준 중 어떠한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강의계획서에 수업목표와 내용에 따른 해당 CEC/INTASC 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들은 그 기준 선정이 정확한지를 판단

한 후, 표에 정리하였고, 기준 선정에 분명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합의하에 다시 기준을 선정한 후 정리하였다. 강의계획서에 CEC/INTASC 기준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각 세부 수업목표와 내용에 해당하는 CEC/INTASC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구자들의 논의 하에 각각의 수업목표와 내용에 해당하는 CEC/INTASC 기준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만약 연구자들 사이에서 CEC/INTASC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하에 기준을 선정하였다.

또한 7개의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수교육개론 과목에서 각 CEC/INTASC 기준에 해당하는 수업목표와 내용이 어느 정도 강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CEC/INTASC 기준에 해당하는 목표와 내용의 개수를 전체 목표의 개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전체목표 중 몇 개의 목표가 각 CEC/INTASC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CEC/INTASC 기준에 해당하는 교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교수학습 활동들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지, 제시되었다면 해당 교수학습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교직과목의 목표를 학습자가 달성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제시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조사하고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수행방법, 평가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총 6개 대학의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교수학습 활동을 조사하였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설명을 요약, 정리하기 위해 세 명의 연구자의 논의와 합의 하에 조사된 교수학습활동을 강의 및 출석과 관련된 활동, 미디어 관련 활동, 개별/조별 프로젝트, 봉사학습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III. 특수교육 교직과목 운영 현황

1. 특수교육 교직과목 교수학습 내용

CEC/INTASC 기준을 토대로 7개 대학의 특수교육개론 교직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고, 이를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7개의 대학 중 5개의 대학에서는 절반이상의 CEC/INTASC의 기준에 해당하는 수업목표와 내용을 포함하여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VU의 경우에는 10가지 기준 중 기준6(언어)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 CEC/INTASC 기준

에 해당하는 수업목표와 내용을 비교적 균등하게 수업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UT, UGA의 경우에는 10가지 기준 중 각각 기준6(언어)과 기준9(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 기준9(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와 기준10(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CEC/INTASC 기준에 해당하는 수업목표와 내용을 수업계획서에 제시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2개의 대학, 즉 GMU, UNLV에서는 10가지 CEC/INTASC 기준 중 3~4가지 기준만을 강조하며 이에 해당하는 수업목표와 내용을 수업계획서에 제시하고 있었다. 즉 GMU의 경우에는 10가지 CEC/INTASC 기준 중 기준1(기초), 기준2(학습자 특성과 발달), 기준3(학습의 개인차)에 해당하는 수업목표와 내용만을 포함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둘째, 다양한 CEC/INTASC의 기준에 해당하는 수업목표와 내용을 수업계획서에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업목표와 내용은 주로 CEC/INTASC의 기준1(기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UGA의 경우, 8가지의 CEC/INTASC 기준에 관련된 수업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준1(기초)에 관련된 수업목표와 내용이 33.3%를 차지하며, 2.8~16.7%를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기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GF와 UMCP의 경우에도 6가지의 CEC/INTASC 기준에 관련된 수업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준1(기초)에 관련된 수업목표와 내용은 각각 28.6%, 33.3%으로 다른 CEC/INTASC의 기준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세가지 또는 네가지 CEC/INTASC 기준만을 포함하고 있는 GMU, UNLV의 경우에도 기준1(기초)는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는데, 즉 기준1(기초)은 GMU가 47.8%, UNLV가 58.3% 정도로 거의 절반 또는 절반이 넘는 수업목표나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GMU와 UNLV의 특수교육 과목에서는 특수교육에 기초에 관련된 특수교육의 기본적인 정의, 용어, 법, 역사적 기초 등에 관한 내용에 주로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UT나 VU의 경우에는 포함하고 있는 8~9가지 CEC/INTASC 기준에 대한 비중이 대부분 10~20% 내외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누어져 수업목표와 내용이 구성되고 있었고, 이에 UT와 VU의 특수교육 과목에서 CEC/INTASC의 기준들 중 어느 한 기준에 관련된 내용에만 편중되어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대부분의 기준들이 수업 중에 모두 다 교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대부분의 대학이 CEC/INTASC의 기준6(언어), 기준9(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 기준10(협력)에 관련한 수업목표와 내용은 수업계획서에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준6(언어)의 경우, UGA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대학의 수업계획서에 관련된 수업목표와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준9(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의 경우에도, VU, USF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대학의 수업계획서에서는 관련된 수업목표와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기준10(협력)의 경우, UT, VU,

UMCP에서는 최대 22.2%까지 매우 비중 있게 관련 수업목표와 내용이 다루어진 반면, 나머지 4개 대학의 수업계획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넷째, 7개의 대학에서 세부교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CEC/INTASC 기준에 관련된 교수학습활동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학교는 7개의 대학 중 2개의 대학, 즉, UT와 USF 뿐이었다. UT와 USF의 경우 교수자가 선정하고 있는 교수학습활동은 주로 기준1(기초), 기준2(학습자 특성과 발달), 기준3(학습의 개인차), 기준5(학습환경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련된 것이었고, 기준8(사정), 기준9(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 기준10(협력)에 해당되는 교수학습활동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UT와 USF에서 제시한 각 교수학습활동에 해당하는 CEC/INTASC 기준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중 교육봉사 또는 봉사학습활동은 여러 CEC/INTASC 기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 기회로서 교수자에 의해서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USF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교육봉사의 경우, 기준3(학습의 개인차), 기준4(교수전략), 기준5(학습환경 및 사회적 상호작용), UT의 수업계획서의 제시된 봉사학습의 경우 기준 2(학습자 특성과 발달), 기준3(학습의 개인차), 기준6(언어), 기준7(교수적 계획)에 해당되는 특수교육 관련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표 3> 특수교육 교직과목 교수학습내용 분석

CEC/INTASC 기준	목표/내용								목표에 부합하는 교수학습활동
	UT	VU*	UGA	GMU	USF	UNLV	UMCP	총 계	
기준 1 : 기초	권리와 책임 정의, 이슈 최소제한 환경 (14.80%)	일반교육 과정에서의 탐구절차와 주요 개념, 가정, 이슈/최소제한 환경/ 역사, 법, 정책 (16%)	특수교육 관련 용어의 정의, 판별절차, 이슈, 적법절차 (33.30%)	통합교육 모델, 법, 정책, 원리, 판별, 적격성, 역사적 관점, 지배문화 (47.80%)	개념적 이해, 용어숙지, 법, 권리, 발생률 (28.60%)	특수교육 역사, 권리와 책임 (58.30%)	역사적 기초, 법, 선택권 (33.30%)	33.16%	수업내/밖 활동, YouTube, 개별프로젝트, 장애영역탐구 프로젝트
기준 2 : 학습자 특성과 발달	장애 특징 (3.70%)	장애특징/신체,인지, 사회, 정서적 특징 (8%)	문화, 약물남용, 학대, 장애특징 (16.70%)	전형, 비전형적 특징, 인간발달, 성장 (30.40%)	특수성 (7.10%)	장애의 원인, 의료적 관점에 대한 이해 (30.60%)	장애 특징 (11.10%)	15.37%	봉사학습, 개별프로젝트, 수업토론, 장애영역탐구 프로젝트

<표 3> 특수교육 교직과목 교수학습내용 분석 (계속)

CEC/INT ASC 기준	목표/내용								목표에 부합하는 교수학습활동	
	UT	VU*	UGA	GMU	USF	UNLV	UMCP	총 계		
기준 3 : 학습의 개인차	학습요구, 문화적 차이 (14.80%)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 확장된 교육과정 (24%)	개인차를 고려한 관별절차 (8.30%)	다양한 삶, 신념, 전통, 가치, 문화, 가정, 교육에 있어서의 차이 (21.70%)	(0%)	(0%)	정상화, 수행능력, 관련 용어 이해 (8.30%)	(0%)	11.01%	수업내/밖 활동, 교육봉사, 봉사학습, 보조공학, 개별프로젝트, YouTube
기준 4 : 교수 전략	예방, 중재전략 (22.20%)	교수와 관련된 전략 (4%)	교육과정, 효과적인 교수 (11.10%)	(0%)	(0%)	교수자료, 공학 (2.80%)	일반적인 교수 방법과 전략 (11.10%)	7.31%	수업내/밖 활동, 교육봉사	
기준 5 : 학습환경 및 사회적 상호작용	교실관리, 행동관리 (22.20%)	내재적 동기, 학습환경, 참여, 자기동기, 자기옹호 (8%)	학습 자료의 조직화 (2.80%)	(0%)	독립적인 삶, 공학적 이해 (7.10%)	(0%)	사회적 교육적 요구에 충족 (11.10%)	7.31%	수업내/밖 활동, 교육봉사, 보조공학, YouTube, 개별프로젝트, 장애영역탐구 프로젝트	
기준 6 : 언어	(0%)	(0%)	일관성 (16.70%)	(0%)	(0%)	(0%)	(0%)	2%	수업내/밖 활동, 봉사학습	
기준 7 : 교수적 계획	차별화 교수, 조절 (7.40%)	교수 계획 (4%)	조직화, 교수 준비 (2.80%)	(0%)	협력, 상담에 대한 지식 (21.40%)	(0%)	(0%)	5.09%	수업내/밖 활동, 봉사학습	
기준 8 : 사정	책무성, 사정 (7.40%)	발달 평가 (16%)	교사역할 (8.30%)	(0%)	배치도 (14.30%)	(0%)	관찰, 검사 (11.10%)	8.16%	수업내/밖 활동	
기준 9 : 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	(0%)	연구, 논문, 자기성찰 (12%)	(0%)	(0%)	다양한 관점 수용, IEP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고 (21.40%)	(0%)	(0%)	4.77%		
기준 10 : 협력	가족, 지역사회, 협력 (7.40%)	가족, 지역사회, 교사, 학생의 협력 (8%)	(0%)	(0%)	(0%)	(0%)	가족, 다문화 이슈, 통합 (22.20%)	5.37%	수업내/밖 활동	

2. 특수교육 교직과목 교수학습 활동

각 대학에서는 최대 9개, 최소 4개의 교수학습 활동을 수업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고, 통합교육을 담당하게 될 예비교사로서의 역량을 높이고자 했다.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교수학습 활동을 크게 강의 및 출석과 관련된 활동, 미디어 관련 활동, 개별/조별 프로젝트, 봉사학습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특수교육 교직과목 교수학습활동 분석

교수학습활동		UT	VU	UGA	GMU	UVA	UMCP	총계
출석 관련 활동	수업내/수업밖 활동	✓	✓			✓		3
	토론	✓		✓				2
	성찰적 읽기 과제	✓				✓	✓	3
	성찰일지/기여 일지					✓	✓	2
미디어/공학 관련 활동	미디어 속 장애학생 묘사	✓						1
	보조공학실 방문	✓						1
	YouTube 활동	✓						1
	영화 혹은 책 리뷰		✓		✓	✓		3
	접근성 조사 프로젝트		✓					1
	웹사이트 개발		✓					1
	IRIS 온라인 모듈 이수		✓					1
개별/조별 프로젝트	실제적 자료수집을 통한 가이드라인작성	✓						1
	차별화 교수 프로젝트 조별활동	✓						1
	장애체험 활동			✓			✓	2
	장애 관련 인터뷰 기말 프로젝트			✓				1
	연구보고서				✓			1
	학술지 논문 읽기 과제				✓			1
	수화로 노래 바꿔 부르기						✓	1
	인터뷰 조별 프로젝트/개별 보고서						✓	1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1
	포트폴리오 개발					✓		1
	장애 영역 탐구 개별 프로젝트					✓		1
자원봉사/봉사학습	봉사학습 프로젝트	✓						1
	봉사학습 프로젝트/자원봉사 활동		✓					1
	현장 경험			✓				1
	현장관찰 보고서 및 사례연구				✓			1
총 계		9	6	4	4	7	5	35

<표 4>에서 정리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들에 대한 설명과 지도방법을 국내에서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이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포함한 과목운영을 계획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최대한 수정하지 않고 정리하고자 했다.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각 교수학습 활동들의 설명과 지도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출석과 관련된 활동

모든 대학에서 출석과 참여는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마다 출석을 점검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거의 모든 대학들이 출석에 관련된 활동을 통해 출석을 점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권장하고 있었다. 제시된 출석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설명과 지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업내 활동과 수업밖 활동

(In Class Activities과 Out-of-Class Activities)

7개의 학교 중 4개의 대학, 즉 UT, VU, UVA, UGA 에서 수업내/수업밖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UT의 경우, 수업내/수업밖 활동은 수업 중 예고 없이 진행되었고, 수업내 활동의 경우 수업중 활동과제 제출을 통해 출석점검을 하고 있었다. 수업내 활동의 예로는 특수교육 관련지식에 관한 진실/거짓 문제, 잘못된 믿음(Myths), 특별초대 강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 제출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수업밖 활동도 참여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었고, 수업밖 활동의 예로는 수업 웹사이트의 토론방에 읽기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생각을 올리기, 다른 학생의 의견, 생각에 대해 댓글 달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각 대학의 수업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내/수업밖 활동에 대한 설명과 참여방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수업에는 적어도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수업내 활동이 있고 그 외 수업밖 활동도 있다. 수업내 활동은 해당 수업시간의 읽기과제와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다. 수업내 활동 점수는 수업에 출석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활동과제를 제출하면 해당점수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수업밖 활동에 대한 정보와 활동과제를 제출하는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수업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한다.

(2) 토론(Chatroom Discussions과 Horizon Wimba)

UT와 UGA는 특수교육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수업 웹사이트에 마련된 토론방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UGA의 경우에는 웹사이트 토론방을 통해 학생간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Horizon Wimba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업을 전달하고, 교수자와 학생들 또는 학생들간에 수업시간보다 더 가깝게 면대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토론을 활성화하는 수업과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UT와 UGA의 수업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 토론에 관한 설명과 참여방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토론방과 Horizon Wimba 참여하여 활발한 면대면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진다. 토론방과 Horizon Wimba의 참여도는 학생의 성적에 반영될 것이고 참여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토론 주제 등은 추후에 이메일을 통해 공고한다. 채팅방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중요이슈들을 토론하고, 수업에 대한 건의사항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Horizon Wimba 시스템을 통해서 마치 강의실내 수업처럼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것이며, 수업참여를 위해서는 말하고 듣는 것이 동시에 가능한 마이크가 달린 PC헤드폰이 필요하다.

(3) 성찰적 읽기일지(Reflective Reading Log)

UT와 UVA의 경우, 매주 제시되는 읽기과제를 읽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상적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일지를 적고, 이를 수업중 제출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 학기 동안 한주도 빠짐없이, 매주 읽기일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읽기일지 과제에 대한 해당점수 외에 추가점수를 제공하기도 했다. UT와 UVA의 수업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 성찰적 읽기일지에 관한 설명과 참여방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 주 수업에 해당하는 읽기 과제를 모두 읽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일지를 적고, 이를 제출한다. 한 학기동안 읽기과제에 대한 일지를 매주 제출한 경우, 해당하는 일지 점수 외에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

(4) 성찰일지(Reflective Log)/기여 일지(Contribution log)

UMCP와 UVA는 수업에 성찰일지 또는 기여일지를 제출하는 활동과제를 통해서 특수교육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성찰일지 또는 기여일지 제출을 통해서 출석점검을 대신하고 있었다. UMCP와 UVA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성찰일지 또는 기여일지에 관한 작성요령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 목표와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들, 수업중 토론, 사회적 주요이슈, 수업중 참여하게 되는 현장경험 또는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에 관한 성찰일지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본 강의계획서에 첨부된 기여일지 형식을 활용해서 기여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다.

2) 미디어/공학 관련 활동

7개의 대학중 절반이상의 대학이 다양한 미디어/공학 관련 활동들, 즉 영화 혹은 책 리뷰, 접근가능성 평가(accessibility), YouTube 동영상 활동, 미디어 속 장애학생 묘사, 보조공학실 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 활동을 유도하고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UT와 VU의 경우 전체 교수학습활동의 각각 30%, 60%가 미디어/공학 관련 활동으로 다른 교수학습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 미디어 속 장애학생 묘사(Media Portrayal)

UT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인식이 무엇 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UT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구체적인 미디어 속 장애학생 묘사 과제제출을 위한 방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과제에 해당되며, 학생들은 미디어 속에 나타난 장애학생들에 대한 다섯가지 묘사방법을 조사한다. 한가지 미디어에만 국한하여 조사하기 보다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그 미디어 속에 나타난 장애학생들에 대한 묘사를 조사해 본다. 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수업 웹사이트의 '미디어 속 장애학생 묘사 파일폴더'에 제공되고 있다.

(2) 대학내 보조공학실(Assistive Technology Lab) 방문

UT의 경우에는 대학내 마련된 보조공학실을 방문하여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직접 살펴보고, 사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 보조공학기기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UT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보조공학실 방문에 관한 과제 수행방법과 제출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캠퍼스내 보조공학실을 방문하면 장애학생들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장애학생의 장애에 따라 어떠한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다. 이 과제를 위한 자세한 정보는 수업 웹사이트의 '보조공학실 파일폴더'에 있다. 보조공

학실 방문을 위해서는 먼저 보조공학실 웹사이트를 통해서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보조공학실 방문 후에는 보조공학실 방문 양식을 작성해야 하므로, 보조공학실을 방문하기 전에 방문 양식을 미리 살펴보고, 방문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방문하는 동안에는 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보조공학실 방문과제는 보조공학실 조교가 발급해주는 보조공학실 방문 확인증, 보조공학실 평가서, 보조공학실 방문양식 제출을 통해 평가된다.

(3) YouTube 활동

UT에서는 YouTube에서 장애학생, 장애위험학생, 영재학생에 관한 비디오나 장애학생, 장애위험학생, 영재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방법에 관한 비디오를 찾고 이를 수업내에서 공유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UT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YouTube 활동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개별과제에 해당되며, 모든 학생은 장애학생, 장애위험학생, 영재학생에 관한 비디오나 장애학생, 장애위험학생, 영재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방법에 관한 비디오를 YouTube에서 찾고 이를 해당시간에 모든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과제를 위한 구체적 설명은 수업 웹사이트의 'YouTube 파일폴더'에 포함되어 있다.

(4) 영화 혹은 책 리뷰

VU, GMU, UVA에서는 영화와 책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 관한 영화를 관람하거나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비평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제를 제공하고 있었다. 영화를 관람하고 책을 읽는 동안에는 수업 중에 배우거나 토론한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 있는지, 잘못된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이 묘사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감상문과 비평문에 적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UVA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쉽게 장애학생에 관련된 영화를 선택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 대한 15개 이상의 영화목록을 수업계획서에 제시하고 있었다. VU, GMU, UVA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영화 혹은 책 리뷰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영화 한편을 선정하고 관람한 후 2~3페이지 분량의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쓴다. 감상문을 쓸 때에는 자신이 영화를 보고 어떤 감정이 생기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 감동적이었는지, 우울했는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느낌이 생겼는지를 기술하고, 장애인을 묘사하는 방법이 정확한지, 현실적인지, 편견이 있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기술한다. 또는 영화와 책 속에 나타난 정보의 정확성,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 영화와 책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시대적 적절성, 전체적인 분위기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비평문을 작성한다. IVA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영화 리스트는 아래에 정리하였다.

- | | | |
|-------------|----------------|--------------|
| - 작은 신의 아이들 | - 길버트 그레이프 | - 마이티 |
| - 도미니크와 유진 | - 라이언의 화이트 스토리 | - 버디 |
| - 생쥐와 인간 | - 제니퍼 8 | - 넬 |
| - 나의 왼발 | - 비온드 사일런스 | - 사랑하고 싶은 그녀 |
| - 레인맨, 마스크 | - 마스크 | - 당신이 그녀라면 |
| - 슬링 블레이드 | - 올랜드 오퍼스 | - 아이엠샘 |

(5) 접근성 조사 프로젝트(Accessibility Scan Project)

VU는 사회 속 다양한 이용시설들이 장애학생이 접근, 이동, 활동을 배려하여 설계되고 설치되었는지를 학생들이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접근성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나, 두명의 학생이 한조가 되어서, 한명의 학생이 직접 장애를 가진 학생인 것처럼 활동하여 이용시설의 접근성 정도를 직접 경험해 보는 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안대를 착용하여 시각장애를 경험하거나, 직접 휠체어를 타며 지체장애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학생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 내의 다양한 편의시설, 예를 들어 화장실, 강의실 등으로 이동하려할 때, 얼마만큼 쉽게 이동할 수 있는지, 이동한 후에는 얼마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즉 접근성 정도를 직접 경험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VU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접근성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접근성 프로젝트는 장애학생을 위한 환경의 접근성 정도에 관한 평가이다. 두명의 학생이 짝을 이루어서 수행하며, 캠퍼스내 건물 중 중 두 개를 선택하여 그 주변 환경과 건물의 접근성을 평가한다. 접근성 정도에 대한 결과분석 내용에 대해서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건물위치와 이름, 접근성 측면에서 각각의 건물과 건물내 이용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 건물과 주변환경에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물과 주변환경의 개선방안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건물과 주변환경, 건물내 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정도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할 점은 아래에 정리하였다.

- | | | |
|-----------------|-----------------------|------------------|
| - 점자 사용 | - 충분한 장애인 주차 공간 | - 계산원과의 용이한 소통 |
| - 이용하기 적합한 화장실 | - 적절한 경사 혹은 엘리베이터 | -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복도 |
| - 접근이 쉬운 건물 출입구 | - 이용이 가능한 식수대/전화기, 위치 | - 적합한 좌석 |

(6) 웹사이트 개발

VU는 특정장애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장애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설계, 개발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학술지, 전문서적, 전문웹사이트를 참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VU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웹사이트 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특정장애 영역을 선정하고 그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설계, 개발한다. 개별적으로 또는 두 명의 학생이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다. 웹사이트 개발을 통해 학생들은 특정장애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학습하며, 웹사이트 개발이 완성된 후에는 다른 학생들과 웹사이트에 제시된 정보를 종합, 요약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웹사이트에서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적어도 수업교재 외에 7개의 참고문헌을 조사하거나 5개의 참고문헌과 2개의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조사된 정보를 통해서 웹사이트의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의 예로는 *Exceptional Children*,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등이 있고, 참고 웹사이트는 옹호기관, 특수교육 기관, 대학교, 권리보장관련 기관 등이 있다.

(7) IRIS 온라인 모듈 이수

VU는 Vanderbilt 대학내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하고 있는 IRIS(Idea'04 and Research for Inclusive Settings)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사훈련 온라인 모듈을 이수하여 장애학생, 통합교육 또는 전반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넓힐 수 있는 활동과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수업계획서에는 IRIS 센터에서 제공하는 20개의 온라인 모듈 리스트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모듈 주제를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VU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IRIS 온라인 모듈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IRIS 온라인 모듈과제를 위해서 학생들은 우선 IRIS 센터의 모듈 첫 도입부분에 해당하는 '도전(Challenge)' 영역을 이수하고, '생각 열기(Initial Thoughts)' 질문들을 답해본다. 그 다음에는 '견해(Perspectives)'와 '자료(Resources)' 영역을 이수하고, 모든 영역을 이수하고 난후, '평가(Assessment)' 영역의 질문들을 답해 본다. 마지막으로 '마무리(Wrap)' 영역을 이수한다. 이 활동들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자신이 배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1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IRIS 온라인 모듈 주소는 <http://iris.peabody>.

vanderbilt.edu/onlinemodules.fitml이다. 또한 IRIS Cente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모듈 중 두 개를 선택하고, 이수한 후에는 선택한 모듈이 무엇인지, 선택한 이유, 배운 내용, 적용방법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술한 기말 보고서를 제출한다. 형식, 길이, APA등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

3) 개별/조별 프로젝트 활동

5개의 대학에서는 2개 이상의 개별 프로젝트 혹은 조별 프로젝트를 과제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개별/조별 프로젝트에는 인터뷰,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적합화를 포함한 수업지도안 작성이 포함되어 있었고, 대부분 기말고사를 대체하거나 기말고사와 동등한 배점을 두면서 프로젝트 수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1) 실제적 자료 수집을 통한 가이드라인 작성

UT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미래직업을 선정하고, 그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교사로서 또는 다른 직업인으로서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UT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개별과제이며, 모든 학생은 각자 자신의 미래 직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학생들은 성공적 교사수행을 위한 실제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거나 교사가 아닌 자신의 선호직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실제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도 있다. 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수업의 웹사이트에 제공되어 있다.

(2) 차별화 교수 프로젝트 조별활동

UT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차별화 교수를 어떻게 계획, 제공할 수 있는지를 조원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별화 교수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차별화 교수 프로젝트 조별활동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차별화 교수 프로젝트 조별활동을 위해 조원들의 관심 장애영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주제를 정한다. 각 그룹은 조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인 장애영역을 선정하고, 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교수방법에 관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발표를 준비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 교수법, 다양한 교과교육을 위한, 근거에 기반한 개별화 교수법, 다양한 학습 특성을 가진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교수법 등에 대한 정보가 발표 시 제시되어야 한다.

(3) 장애체험 활동(Sensitivity Activity)

UMCP와 UGA는 학생들에게 장애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를 인식하며, 우리의 주변환경을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점검해 보는 장애체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UMCP와 UGA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수행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체험하는 두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표를 개발하고, 자신의 경험을 적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두가지 활동은 '백화점 가기'와 '캠퍼스내 건물 가기'이다. '백화점 가기' 활동은 두명의 학생이 한조가 되어, 휠체어를 빌려서 백화점에 가본다. 두명의 학생중 한명은 의류매장에서 옷을 골라보기, 엘리베이터 타보기, 화장실 이용해 보기, 의류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들에 가서 쇼핑해 보기,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을 사보기 등의 장애체험활동을 한다. 나머지 다른 학생은 백화점의 그릇매장에 가보기, 향수매장에서 향수를 골라보기, 특정 의류매장에 가서 세일상품을 골라보기, 백화점 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닌 공공화장실 이용해 보기, 휠체어 반납하기 등의 장애체험활동을 한다. 장애체험활동을 모두 끝낸후 학생은 개별적으로 자신이 백화점 내에서 가보았던 장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각각 장소들에 대해서 휠체어를 탄 지체학생이 이용하기에 어려웠던 정도를 1~5점 또는 1~7점 범위에서 평가해본다. 또한 각각의 장소에 대해서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학생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적어본다. 캠퍼스내 건물 방문하기 활동은 휠체어를 빌려서 직접 경험해 볼 필요는 없지만, 백화점에서 휠체어를 탄 경험을 바탕으로 휠체어를 탔을 때 건물내 곳곳, 즉 화장실, 건물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문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를 평가해 본다. 백화점 가기 활동과 마찬가지로 평가표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주변환경 접근성에 관한 법률과 그 영향력, 개인적인 경험들은 무엇인가에 관한 사항들을 보고서에 추가로 기술할 수 있다.

(4) 장애학생 관련 인터뷰 기말 프로젝트

UGA는 장애학생의 부모나 친척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과제를 통해서 장애학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이 무엇인지를 조사해보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수업계획서에는 학생들이 인터뷰시 이용할 수 있는 질문들이 제시되어있다. UGA에 제시된 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의 부모나 장애를 가진 친척이 있는 사람을 인터뷰한다. 장애학생의 부모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가 불가능하다면, 교수자에게 알려 대체과제를 받도록 한다. 인터뷰 대상자에게 그들의 아들이나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과 어떻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더 잘 가르치고,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행동 수정 방법들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한다. 장애 아동 또는 장애를 가진 친척이 다른 아동에게 또는 다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어도 좋다. 인터뷰시에 “장애학생이 매일 학습하고 성장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장애학생의 위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중재는 무엇입니까?” “장애학생이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과정을 마친후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을 바탕으로 총 15개의 질문을 제시하도록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인터뷰 보고서에는 인터뷰 대상과, 인터뷰 이유, 정보수집방법, 자신의 질문내용, 질문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들을 정리해 본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미래의 교육자로서 장애학생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과 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경험과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주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연구보고서

GMU는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학습한 특수교육에 관련된 중요주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제시하여 특수교육의 중요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조사하고 탐구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GMU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다:

연구보고서는 통합교육, 협력교수, 보조인력과 협력, 부모와 협력, 장애학생(학습장애나 자폐 등)을 위한 교수전략, IDEA 개정안, NCLB, 훈육, 학급 관리, 행동 수정, 과제 분석 등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량은 10페이지 이상이며 APA 양식으로 5개 이상 참고문헌을 제시하도록 한다.

(6) 학술지 논문 읽기 과제

GMU는 학술지에 실린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전략에 관련된 3편의 논문을 읽고 이를 요약 정리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학술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GMU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학술지 논문 중 특수아를 위한 교수 전략에 관한 논문 3편을 읽고, 7페이지 이내로 정리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참고 할 수 있는 학술지는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Teaching K-12, Phi Delta Kappan’, ‘Exceptional Children’, ‘Reading Teacher’, ‘Instructor’ 등이다.

(7) 수화로 노래 바꿔 부르기 (Signing Activity)

UMCP는 여러 학생들이 한조를 이루어 하나의 노래를 수화로 바꾸어 불러보는

활동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수화를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화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이 활동과제를 통해 수화를 배워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10개 이상의 노래들이 수업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다.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활동과제에 대한 설명과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다:

여러 학생들이 한조를 이루어, 조원들과 함께 한 노래를 선택하고, 그 노래를 수화로 번역하고, 노래를 수화와 함께 부른다. 목소리가 담긴 노래와 수화로 번역본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수화에 대한 정보는 수화 사전이나 온라인을 이용하도록 하고, 미국 수화언어 브라우저(<http://commtechlab.msu.edu/sites/aslweb/brower.htm>)를 참고하도록 한다. 이 과제에 대한 점수는 교수자와 모든 학생들이 수화노래를 함께 듣고 평가한 점수표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가장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수화로 노래를 부른 조는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노래는 You'll Never Walk Alone(Carousel), A Wonderful Guy(Southern Pacific), I Dreamed a Dream, One Day More(Les Misreables), Wishing You Were Here Again(Phantom of the Opera), Memory(Cats) 등이 있다.

(8) 인터뷰 조별 프로젝트와 개별 보고서

UMCP는 여러명의 학생들이 한조가 되어서 장애를 가진 성인, 장애학생을 둔 부모 또는 특수교사, 학교 행정가를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를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UMCP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보고서 작성, 발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여러 학생들이 한조를 이루어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후에 조원들은 개별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결과를 통합한다. 각 조는 인터뷰에서 (1) 장애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효과성, 교육의 정도들을 질문하거나, (2) 장애학생을 가진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 개인적 어려움 등을 질문하거나, (3) 성인 서비스 기관에 있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고용 기회, 거주지 등을 질문하거나, (4) 학교 행정가를 대상으로 통합교육과 장학 등을 질문하거나, (5) 학교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적 기법, 학교관리 등을 질문할 수 있다. 인터뷰 질문은 인터뷰 전에 개발하고 교수자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뷰 후 조별 발표는 30분 내로 하며 5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모든 조원들을 발표에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을 위해 발표 유인물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 발표내용은 서론, 인터뷰에 대한 조원들의 결과 종합, 결론 등으로 구성한다. 인터뷰에 관한 조원들의 개별 보고서는 3~5쪽 분량으로 APA 형식을 따르고, 인터뷰 결과와 인터뷰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9)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UVA는 수업에서 배운 지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학생 특히 학습장애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주변사람들의 많은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학습장애에 대한 관련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장애에 대해 일반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50개가 넘는 질문들이 수업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다. UVA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설명과 학습장애 관련 질문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배운 장애학생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부모님, 선생님들, 형제, 자매, 심지어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학습장애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될 것이다. LD Online 웹사이트 (<http://www.ldonline.org/questions>)에 제시된 학습장애에 대한 일반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질문들에서 5개의 질문을 선택하고, 5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적어본다. LD Online 웹사이트에 제시되어 다양한 정보들을 참조할 수 있으나 되도록 다른 참고문헌도 살펴보고자 한다.

- 학습장애란 무엇인가?
-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과 늦게 배우는 학습자(학습지니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학습장애가 심해질 수도 있는가?
- 언어에 결함을 보이는 학습장애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가(나타나는가)?
- 학습장애는 지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10) 포트폴리오 개발

UVA는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한 장애학생에 대한 사례 연구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 IEP 분석, 장애학생을 위한 수업지도안, 수업계획, 보편적인 설계에 대해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UVA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포트폴리오 개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 포트폴리오를 한 학기에 걸쳐서 개발한다.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영역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사례연구를 제시하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사례연구에서 발췌한 IEP를 분석한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수업지도안, 수업계획, 보편적 설계에 관해 고찰해 본다.

(11) 장애영역 탐구 프로젝트

UVA는 수업에서 다루어졌지만, 더 깊이 있는 관련지식이 필요한 장애영역이나,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장애 영역 중 한가지 장애영역에 관해 학생들이 조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영역 탐구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개발한 최종적인 과제 결과물은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여 보다 폭넓은 장애영역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UVA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말 프로젝트로서 학생들은 한 장애영역을 선택해서 깊이 있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탐구한다. 장애영역은 수업 중에 다루어진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어떤 증후군이나 장애영역을 조사할 수 있다. 장애영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난 후,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1) 웹사이트, (2) 안내책자(Brochure), 또는 (3) 동영상(I-movie /Movie Maker film)을 개발한다. 과제수행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도, 조별로 진행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최소한 7개 참고문헌 또는 5개의 참고문헌과 2개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장애영역에 관한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Exceptional Children',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등과 같은 특수교육 관련 전문 학술지, 전문서적, 옹호단체, 특정장애 주제관련 사이트, 부모집단, 학교/대학, 특수교육기관, 연구 등의 웹사이트 등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한 웹사이트, 안내책자, 또는 동영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평가기준이 되는 내용영역은 (1) 홈페이지/표지/서론, (2) 특성, (3) 치료와 교육적 고려점들, (4) 자료, (5) 참고문헌과 전반적 형식으로 모두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홈페이지/표지/서론 영역에서는 프로젝트 명과 개발자 또는 개발조원들 이름, 프로젝트의 내용, 대상, 결론에 대한 요약, 목차, 면책진술("본 프로젝트는 수업 과제로 개발된 것이다.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자가 할 수 있는 저자의 능력안에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실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작성한 것은 아니다)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특성영역에서는 특성에 대한 기술, 선별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치료와 교육적 고려점들 영역에서는 의학적 고려 (약물치료/수술), 조기 중재, 연구에 근거한 효과적 교육방법, 웹사이트, 안내책자, 또는 동영상에 대한 기술, 부모와 교사를 위한 제안점들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자료에서는 책, 비디오,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참고문헌과 전반적 형식 영역에서는 참고문헌 목록을 포함해야 하고 (APA 혹은 MLA 형식으로 작성), 철자와 문법의 정확성과 읽고, 탐색하고 보기 쉬운 형태로 웹사이트, 안내책자, 또는 동영상이 제작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현장경험(Field-based Experience), 자원봉사(Volunteer Work),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활동

현장경험과 관찰, 자원봉사, 봉사학습 등의 프로젝트는 특수교육 교직과목에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이론적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장애인 혹은 장애학생과 직접적인 경험을 하여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사고와 관점, 적용 능력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여겨져 대부분 학교의 특수교육 과목에서 적용되고 있었다. 수업계획서에는 학생들이 현장경험과 관찰, 자원봉사, 봉사학습을 하는 동안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전 교육내용, 학생들이 주의해야 하는 점들, 사후에 제출해야 하는 과제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1) 봉사학습 프로젝트

UT에서 봉사학습 프로젝트는 점수 배점이 전체 점수의 40%로서 10~27%를 차지하는 다른 과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업계획서에는 봉사학습에 대한 과제설명 뿐 아니라 봉사학습 활동과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 예를 들어 봉사학습 장소 리스트, 담당자들의 연락처 등을 제시하고 있었고, 필요한 문서들, 예를 들면 봉사학습 합의서, 봉사학습 일지형식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봉사학습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봉사학습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연락을 해서 최소한 15시간의 현장봉사를 해야 한다. 봉사학습 수행장소에서 한명 혹은 한명이상의 장애학생을 위한 튜터링 또는 멘토링을 제공한다. 다만 장소에 따라 다른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수업 웹사이트에 봉사학습을 위한 문서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봉사학습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봉사학습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봉사학습 수행기관은 첫 수업 후 2주차까지 정하고, 봉사학습 수행기관 담당자의 봉사학습 허락사인을 받은 '봉사 학습 합의서'를 3주차까지 제출해야 한다. 봉사학습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개별적 성찰 보고서'에 봉사학습을 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 생각들을 정리하여 적고, 제출해야 한다. 수업 웹사이트에서 개별적인 블로그를 만들고 이 블로그에 학기중 매달 봉사학습 경험에 관련된 게시물은 올려야 한다. 수업 웹사이트에 있는 봉사학습 일지(Log)에 봉사학습을 수행한 날짜, 간단히 어떤 봉사학습을 했는지에 대해 적고, 15시간을 모두 수행한 후에는 봉사학습 일지에 담당자의 사인과 간단한 의견을 받아온다. 봉사학습 일지를 복사해서 조교에게 학기말에 제출한다. 봉사학습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모든 세부과제를 완수하고, 관련문서를 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과 블로그에 봉사학습 현장경험에 관련된 게시물을 올렸는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2) 봉사학습 프로젝트/자원봉사 활동

VU도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봉사학습,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장애학생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VU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봉사학습 프로젝트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설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봉사학습 프로젝트와 자원봉사 활동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장애인 시설에서 4주 이상 최소 12~15시간 이상 봉사를 해야 한다. 봉사학습과 자원봉사 활동이 모두 끝난 후 관련된 보고서는 3~4페이지 분량으로 실습한 기관과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인 정보, 즉, 관련정보를 얼마나 잘 기술하였는지, 장소와 학생들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서술 등이 제시되었는지, 시설에 대한 설명, 학생들에 대한 설명, 직업에 대하여 설명,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하여 교사의 설명과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학습 경험 요약 등이 제대로 제시되었는지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보고서의 형식, 길이, APA 형식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

(3) 현장경험

UGA는 장애학생의 삶과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경험의 중요성을 수업계획서에서 강조하고, 이에 대한 활동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UGA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현장경험 활동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예비교사들은 현장경험을 통해 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개인차 혹은 장애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인 특수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특수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현장경험을 수행해야 한다.

(4) 현장관찰 보고서 및 사례 연구

GMU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장애학생과의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학생이 속한 학교현장에서의 관찰과제와 사례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GMU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을 관찰한다. 관찰 보고서 양식과 관찰기준이 제공될 것이다. 공립 학교에서 관찰과 사례연구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한다. 장애학생에 관한 종합적인 관찰과 사례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연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에 정리하였다.

- 학생의 배경 정보
- 학교와 거주지 기술
- 교사 인터뷰
- 학생의 교육 배경 정보
(특수교육 배정과 배정이유)
- IEP 목표와 목적
- 관찰결과 정보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대학의 특수교육 교직과목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수업의 목표와 주차별 내용 뿐 아니라 예비교사가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과제도 CEC/INTASC의 기준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CEC/INTASC의 기준과 같은 특수교육 교직과목 교육내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에서 어떠한 목표를 다루고 수업을 운영하며, 과제를 제시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CEC/INTASC 기준과 같은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기준은 아니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으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가 수행된 바 있다(이대식, 김수연, 신현기 외, 2004). 요구조사에 따른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준을 분석해 보면, CEC/INTASC의 10가지 기준 중 기준1(기초), 기준4(교수전략), 기준5(학습환경 및 사회적 상호작용), 기준7(교수적 계획), 기준10(협력)과 공통적인 내용, 즉 장애,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개선, 행동관리, 통합학급 수업 지도, 공동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수연, 2010).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초등 통합교육 담당교사 교육을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보다 통합교육 환경이 더 열악한 중·고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그 요구조사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특수교육 핵심내용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예비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특수교육 핵심내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여 이를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을 구성하는 수업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특수교육 핵심내용 기준을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되는데, 미국의 경우, CEC/INTASC 기준의 보급을 위해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수자를 파견하여 교사양성 프로그램 운영자와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를 연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예비교사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특수교육 핵심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다양한 교수자 연수 프로그램에서 홍보하여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7개의 대학 중 5개의 대학의 특수교육 과목에서는 10가지 CEC/INTASC의 기준 중 절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수업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수업을 계획, 구성하고 있었다. 다양한 수업목표와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CEC/INTASC의 기준1(기초)에 관련된 수업목표와 내용에 치중되어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기준1(기초)가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이유는, 본 연구 분석대상인 특수교육 교직과목이 특수교육에 전혀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과목이기에,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 예를 들어 특수교육 역사, 법, 정책들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EC/INTASC의 기준1(기초)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좀 더 심화된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별도로 개설, 운영하여 그 과목에서 교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본 연구에서 강의계획서를 수집하기 위해서 각 대학의 교육과정관련 문서를 살펴보는 동안, 연구자들은 많은 대학들이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기초와 심화, 두 과목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기초 특수교육 수업은 예비교사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운영되며, CEC/INTASC의 기준1(기초)과 같은 특수교육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심화 특수교육 수업은 예비교사들의 선택이수가 가능하며, 좀 더 심화된, 즉 기준1(기초)의 영역을 넘어선 좀 더 전문적인 특수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이 단 한 개로 한정되고, 2학점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에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CEC/INTASC가 제시하는 특수교육에 관련된 10가지 핵심내용을 모두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들이 특수교육을 보다 심도있게 학습하고 장애학생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2학점 이상으로 확장,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7개의 대학 중 비록 2개의 대학만이 CEC/INTASC의 기준과 관련하여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교수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각 대학들은 최대 9개, 최소 4개의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예비교사들에게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가 과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중 각 대학과 학생,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활동을 선택, 종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의 특성상 예비교사들은 특수교육 또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봉사학습, 수업실습, 참관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들은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여 특수

교육 또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수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고, 미래의 통합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다지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교수학습 내용 분석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에서 특히 봉사학습(또는 교육봉사)의 경우, 교수자들은 특수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필수학습내용을 장애학생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교수학습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었다(NCRTL, 1991; Widden et al., 1998). 따라서 특수교육개론 과목에서는 봉사학습(또는 교육봉사)과 같이 특수교육 또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예비교사가 장애학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예비교사들이 특수교육 또는 통합교육 현장에 나가기 전, 장애학생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장애학생 지도를 위한 실제적 기술과 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도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장노트 점검, 예비교사 상담과 현장경험과 활동에 대한 수퍼비전,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운영, 현장경험과 활동 평가 등을 통해 예비교사가 구조화된 현장활동을 경험하고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 운영과 구성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현장경험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와의 협력과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강의계획서를 중심으로 교직과목의 내용과 교수학습활동 과제를 분석하였기에 실제 수업과 교수활동이 강의계획서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고, 특히 교수학습활동의 경우, 강의계획서에 그 내용이 간략하게 기술되었을 경우에는 교수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강의계획서에 교수목표가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교수한 내용이 교수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교수자와 예비교사와의 인터뷰와 수업관찰 등을 통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한 추후연구의 방향들을 숙지하고,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역량 있는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보다 다양한 추후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의 내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이 고찰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끊임없는 교수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하 (1997). 특수교육 교사의 전문성. *난청과 언어장애연구*, 18(2), 3-5
- 김수연 (2010). 성공적인 중등 통합교육을 위하여. **2010 한국통합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57-61.
- 김호연, 박경옥, 이태수, 유재연 (2007). 예비특수교사의 교육실습 운영 실태 분석 및 인식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419-443.
- 권요한, 이만영 (2002). 통합 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조정 요인. *특수교육학연구*, 37(2), 249-277.
- 이동주, 권요한 (2009). 초등학교 통합학급의 과학과 교육과정 조정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 아동교육연구*, 11(2), 165-209.
- 이대식, 김수연, 신현기, 이은주 (2004). 교육대학교에서의 통합교육 담당교사 교육의 방향. *교원교육연구*, 21(2), 67-88.
- 이영선 (2010). 예비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교직과목의 효과적 교수: 개념적 구조. *특수교육*, 9(1), 95-120.
- Bringle, R. G., & Hatcher, J. A. (1995). A service-learning curriculum for faculty.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2, 112-122.
-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2008). *General Educator Learning Outcomes*. Washington, DC.
-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2010). *Initial Practitioner Knowledge and Skills*. Retrieved from <http://www.cec.sped.org/Content/NavigationMenu/ProfessionalDevelopment/ProfessionalStandards>.
- Gonsier-Gerdin, J., & Royce-Davis, J. (2005). Developing advocate and leaders through service-learning in preservice and inservice special education programs. In S. Root, J. Callahan, & S. H. Billing (Eds.), *Improving service-learning practice: Research on models to enhance impacts* (pp. 37-57).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 (2001, May). *Model Standards for Licensing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Resource for State Dialogue*. Washington, DC: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 Kamens, M. W., Dolyniuk, C. A., & Dinardo, P. (2003). Preparing teachers for the transi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community-based instruction.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26, 99-118.
- Mayhew, J., & Welch, M. (2001). A call to service: Service-learning as a pedagogy in special education programs. *Teacher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24, 208-219.

-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Teacher Learning. (1991). *Findings from the teacher education and learning to teach study*.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 Novak, J., Murray, M., & Curran, E. (2009). Enhancing the preparation of special educators through service learning: Evidence from two preservice co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4*(2), 32-44.
- Powers, P. J. (1992). *The Effect of Special Education Coursework upon the Preparation of Preservice Teachers*. Retrieved from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377 183.
- Prater, M. A., & Sileo, T. W. (2004). Fieldwork requirements in special education preparation: A national study. *Teacher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27*, 251-263.
- Sabornie, E. J., & deBettencourt, L. U. (1997). *Teaching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at the Secondary Level*.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Merrill.
- Widden, M., Mayer-Smith, J., & Moon, B. (1998). A crit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on learning to teach: Making the case for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inquir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8*(2), 130-178.

Investigation for Management Plan of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Course for Enhancement of
Pre-Service Teachers' Competency for Inclusion:
Based on Analysis of Syllabi from the Universities in the US

Son, Seung-Hyun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

Seo, You-Jin

BK 21 Group in Education, Korea Univ.

Na, Kyong-Eun

Korea Univ.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Abstract>

Under the agreement on the importance about inclu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to general education classroom,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course has been required for pre-service teacher training. However, research on how things stand in terms of its scope and sequence is wanting to set up guidelines to maximize the effects of the course. In this study, we selected university syllabi from the US to examine the course objectives, contents and course requirements by CEC/INTASC' s 10 standa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course as a ground course offering to general education pre-service teachers mainly dealt with special education foundation, CEC/INTASC standard 1. Course requirements such as attendance related activities, media/technology related activities, individual/group project, and volunteer/service learning project were suggested with specific guidelines to accomplish objectives. With discussion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management plan for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course to train and produce pre-service teachers to support high quality inclusive education.

Key Words

: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inclusive education, pre-service teacher, CEC/INTASC standards

논문 접수: 2010. 07. 29 심사 시작: 2010. 08. 12 게재 확정: 2010. 09. 16